

“공천 잡음에 표 떨어질라”...野 후보들 노심초사

더민주 셀프공천·내홍에 유권자들 곱지않은 시선

국민의당 숙의배심원제·비례 선정 잡음도 부정적 여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간 광주·전남지역 4·13 총선 대진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양 당 모두 비례대표 공천 등의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후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박빙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당의 내용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지역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민주는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의 ‘전략공천’으로 잡음이 있었지만, 선거판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중헌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공천’ 논란으로 이어진 당 내홍은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 대표가 당무 거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이날 비례대표 2번을 다시 받으면서 당 잔류를 선언한 데 대해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야를 떠나들며 비례대표를 5번씩이나 한다는 부정적 시각에, 당 비대위원 등을 비롯한 주류까지 김 대표의 ‘논치’를 보는 것에 대해 더민주의 정체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소속 광주지역 한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중헌 대표가 나름대로 당을 잘 진두지휘하며 지도도가 올라갔는데,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당이 시끄러우면서 지역에서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전투한 군사정권 시

절 국보위 활동을 했던 사람이 60년 정통의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당내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야권 텃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분개했다.

국민의당 역시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후보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의 야권연대 갈등이 봉합된 듯 하더니, 광주지역 숙의배심원단 운영 미숙으로 인한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경선 불복에 대한 재심 신청이 줄을 잇는데다, 재심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일부 당원들의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또 다시 계파갈등이 빚어져 국민의당 공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지역 한 후보는 “다행히 이날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계파 갈등은 우선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과정에 또 다른 잡음이 터져나올 경우 당 지지율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경선제도의 숙의배심원 제도에 참여했던 A씨는 “개혁 공천 등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역 의원 단 한명도 교체하지 못하는 경선이 과연 개혁 공천인지 의문시된다”면서 “특히 숙의배심원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은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당 지도부의 갈등과 공천 잡음이 20일 앞둔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당이나’, ‘인물이나’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 당 지도부의 모습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다가 갈수록 어느 당이 잘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면서 “양 당 지도부의 갈등속에 결국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들은 당보다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현상

장병완, 긍정·공손·정책 선거 협약 제안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 갑) 의원은 23일 긍정(Positive)·공손(Polite)·정책(Policy)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각 당의 경선을 위한 후보자 압축, 경선과정 등에서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선거가 비일비재했다”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라도 포지티브 선거, 공손한 선거, 정책 선거를 위한 ‘3P 선거’ 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고교시절 교복 차림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을) 예비후보는 23일 옛 고교시절 교복차림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교복차림을 한 뒤 남광주 시장·사직공원 일대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후보는 “광주 원도심을 반드시 부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교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이색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호남 KTX 증편·요금인하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을)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수도권에서 광주·전남을 찾는 인구의 KTX 이용률이 전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KTX의 증편과 요금인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객차와 좌석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인 만큼 증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기석 공천장 받아...총선 승리 다짐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 갑) 후보는 23일 국민의당 중앙당을 방문, 공천장을 수여 받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공천장을 수여한 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으로 기록되고 있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송 후보는 “호남정치 복원과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사무소 개소...“혁신정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을) 후보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엔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을 비롯한 정경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양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일지라리의 정치, 삶의 정치, 혁신의 정치를 통해 구 정치를 상대할 것”이라면서 “광주 정치의 새로운 리더로 우뚝 서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일·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총선 승리를 위하여” 국민의당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신진후보들 “의전·계파·막말 정치와 이별”

이용빈·송갑석·양향자·정준호 ‘뉴파티 5대 선언’

더불어민주당 광주 신진 후보들이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용빈(광산갑)·송갑석(서구갑)·양향자(서구을)·정준호(북구갑) 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뉴파티 5대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국회의원도 손이 있다. 차량 문은

저희 손으로 열겠다”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차량을 기다리게 하는 식의 ‘의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또 “광주시민과 국민은 야당에 당내에서 그만 싸우라고 한다”며 “광주 지역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국민 계파’ 하나만 존재한다”고 계파정치 종식을 선언했다.

막말 정치, 줄세우기 정치를 배격하고 지역 정치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굳건히 연대해 더 좋은 광주를 위해 함께 뛰겠다”며 “더민주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재탄생시켜 정권교체 임무를 완수하고 광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에서는 8개 선거구 중 5곳에 현역의원이 포진하고 더민주는 단 한명도 없는 경쟁구도와 관련해 송갑석 후보는 “어느 정당이 새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의 열망에 화답하겠느냐, 수도권 중심으로 집권당과 맞붙는 더민주와, 호남에서만 의석을 기대하는 국민의당 중 어느 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답은 자명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친절하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